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4.30.(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o	매수	2
담당부서	DMZ정책과 (DMZ보전팀)	과장	강지숙 (031-8030-2650)					
		팀장	김연정 (031-8030-2661)					
		담당자	이시은 (031-8030-2663)					

## “평화누리길 더욱 즐기고 싶다면 ‘어울림센터’ 이용하세요”

- 평화누리길 방문객 쉼터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연천 내 어울림센터 본격 운영  
- 2010년 조성한 DMZ 일원 대표적인 도보길인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역할
- 미라클타운 등 연천군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평화누리길 이용객 증가 기대

경기도가 DMZ 일원 대표 걷기 길인 ‘평화누리길’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2010년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일원 고양·김포·파주·연천 에 조성한 대한민국 최북단의 대표적인 걷기 길로, 총 12개 코스 184km로 구성됐다.

도는 2023년 8월 평화누리길 대상 지역 중 타 지역 대비 편의시설이 적은 연천군에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면서 DMZ 일원 지역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어울림센터는 연면적 696.95㎡(1개동, 3층) 규모인 방문자 지원센터로, 2022년 10월 경기도민 DMZ 70주년 아이디어 명칭 공모를 통해 ‘어울림센터’가 선정됐으며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업무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가 맡는다.

도는 평화누리길 쉼터, 안내소, 전시홍보관, 교육장 등을 통해 평화누리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평화누리길 종주자 명예의 전당 및 정기모임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천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상생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지역주민 연계 방안도 발굴한다.

또한 평화누리길 생태·문화·역사 등 인문학 교육, 해설사 교육, 지역주민 자원봉사 교육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평화누리길 관련 상품도 시범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난 3월 경기도·연천군·경기관광공사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계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및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거점 활용 운영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이며, 어울림센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연천군 주요 관광시설인 미라클타운, 로하스파크, 그리팅맨 인근에 센터가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에서 운영 중인 시티투어 버스 코스 중 수요일에 운영하는 ‘DMZ 안보관광’ 코스에 어울림센터 (미라클타운)를 연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연천 지역행사 코스에 어울림센터를 관광코스로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누리길이 DMZ 일원 대표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울림센터가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